

제시문을 이용해서 제시문을 읽는 법

안녕하세요, 정도환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글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모르는 시험지와 대면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부분인 제시문 독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시문을 이용해서 제시문을 읽는 기술인데요. 비교문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논술문제를 풀 때 3자비교 형식이 주어진다면, 제시문 (가).(나).(다)를 X의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형식의 발문이 주어집니다.

이 때, X는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구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세 제시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때, 제가 말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2011 연세대학교 죽음과 2010 연세대학교 공공성에서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2011 죽음부터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 2011 죽음

제시문 (가) 1문단 발췌

“인간은 생명체로서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이므로 동물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과 대조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성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1문단에서 죽음은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특수성이고 2문단에서 인간은 이 죽음을 생각 할 때 삶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시문 (가)의 주제구요.

그럼 제시문 (나)를 볼게요.

제시문(나) 1문단 발췌

“1980년 8월 5일 한 학생이 비소케산의 경사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고릴라들을 보고 있었다. 마체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마체사는 아마 죽었거나 혼수상태였던 것 같다.”

제시문 (나) 3문단 발췌

“다음 날 아침 고릴라들은 여전히 마체사의 사체 주위에 모여 있었다.,” “고릴라들의 이런 행동은 적어도 이 집단의 경우에는 죽은 고릴라에게서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것 같았다.”

제시문 (나)의 주제를 보자면 고릴라들은 죽은걸로 추측되는 마체사라는 고릴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때 마체사로부터 반응을 이끌어 내려고 하죠. 여기까지만 저희가 제시문을 통해서 추측해 낼 수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합격자들의 답안을 보면 많은 답안들이 제시문 (가)는 죽음을 인지 할 수 있고 제시문 (나)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마체사로부터 고릴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 고릴라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과정 사이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합격자들 또한 논리적 비약이죠. 사실 제시문 (나) 자체를 보고 고릴라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릴라가 죽음을 인지하고, 따라서 더 과격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도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의 답안이 논리적 비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시문 (가)에서 죽음을 인지함은 인간만이 가능한 능력으로 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시문 (나)의 주제인 고릴라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로 끝나버리는 거죠.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죽었거나 혼수상태인 것 같다. 혹은 사체주위에 모여있었다. 라는 것은 다 고릴라들을 관찰한 인간의 관점이라서 저렇게 표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의 초점은 인간(관찰자)가 아닌 고릴라 자체이기 때문에 고릴라는 인식못한다.로 답을 서술해야 하는거구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시문 (가) (나)를 여러방면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선 답안을 하나로 한정해버렸습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바라 볼 수 있는 관점을 제한해 버린거예요.

또한 2010 연세대학교 공공성을 보게 되면

제시문 (가) 1문단 발췌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제시문 (가) 3문단 발췌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 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 하며 진압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즉 제시문 (가)에선 계속해서 정부의 의한 공공성 실현을 바라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사업이라는 행위를 통해 현실화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제시문 (나)를 볼게요.

제시문 (나) 1문단 발췌

“좁은 의미에서 ‘공적’ 이라는 말은 ‘국가적’ 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 지을수 있다.”

이 문제는 위에서 풀었던 2011 죽음과는 반대로 제시문 (나)를 통해서 제시문 (가)를 읽게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제시문 (가)에서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의 실현은 좁은의미의 공공성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는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즉, 제시문 (나)에서는 넓은 의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사적인 영역을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연결 시켜 현대사회에서 이해되는 공공성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시문(가)에서 공공성은 좁은 의미의 공공성으로 사회적인 영역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만 치중함으로써 사적인 부문에 대한 공공성의 실현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주체 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공공성의 개념자체에 대한 이해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를 통해 (가)를 읽지 못하고, 따로 놓게 된다면?

제시문 (가)는 공공성의 실현주체를 정부로 본다.

제시문 (나)는 공공성의 실현 주체를 시민 사회로 본다.

끝. 이렇게 단순하게 제시문에 나온 내용만으로밖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성의 진정한 개념까지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구요.

어떤 답안이 더 수준이 높고 제시문을 깊게 이해한 답안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성의 실현 주체가 달라짐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공공성의 이미까지 비교할 수 있는 제시문 이구요.

이 두 답안을 통해 설명하고 싶은 바는 제시문을 통해서 다른 제시문을 바라봐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시문 하나하나의 주제만 바라보더라도 발문상에서 관점이 주어졌다면 그 관점을 통해서 바라 볼 때 비교가 되죠. 하지만, 발문상에 관점이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애매할 때는 제시문 상에 주어진 근거에 따라 다른 제시문을 바라봐 주면 완벽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출문제를 통해 한번 연습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